

콘 사토시(今梅)의 作品中에서 보여지는 초월적 기호의 해체구조 研究

- 「퍼펙트 블루」를 中心으로 -

이승재 (한국재활복지대학)

차 례

1. 서 론
2. <퍼펙트 블루> ; 네러티브구조 분석
3. 롤랑 바라트의 기호학적 관점
4. 자코 데라다의 해체주의적 관점
5. 결 론

“나는 피해자이자, 목격자이며, 범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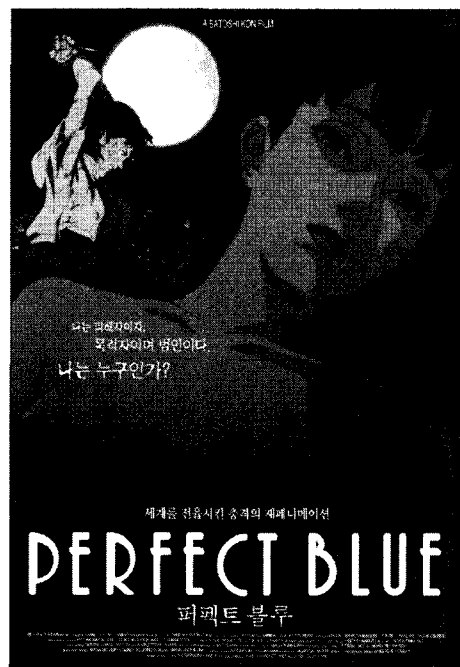
1997년 ‘콘 사토시(今梅)’ 감독의 <퍼펙트 블루(Perfect Blue)>는 그동안 실사 영화들이 점령해온 사이코 스릴러라는 장르를 애니메이션 화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접해온 추리 애니메이션은 탐정과 범인이 항상 정해져 있는 획일화 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만화책과 TV 방영을 통해 친숙해진 대표적인 일본 추리 애니메이션으로 <소년탐정 김전일>, <명탐정 코난> 등이 있는데, 이들 두 작품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명의 명탐정이 범인이 만들어 놓은 치밀한 트릭을 간파하여 마지막에 그의 무릎을 꿇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추리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독자나 시청자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퍼펙트 블루>에서는 이러한 친절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범인과 용의자, 피해자가 뒤섞이면서 보는 이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인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마저 진짜 범인에게 당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감독이 친절하게 작품 속에 흘려놓았던 수많은 단서들을 되짚어 보며 ‘그렇군!’이라는 말을 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콘 사토시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우리는 이미 시청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단서가 무엇이었

는지는 금방 알아차리기 힘들다. 이런 혼란이 <퍼펙트 블루>가 가진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이유는 실사 영화로 제작해도 되었을 훌륭한 소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감독인 콘 사토시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온 고정관념들, 다시 말해 미소녀와 로봇이 나오는 작품이 아닌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매니아를 위한 컬트적인 영화를 만들더니 마침내는 평론가를 위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림 1. 퍼펙트블루 포스터

피카소는 청색을 색의 왕이며 광기의 색이라 했다. 이 작품 제목의 의미에 대해 콘 사토시 감독은 현실과 환상에 대한 편집광적인 이 이야기의 제목에 '퍼펙트 블루'는 절묘한 조화이며, 그 결과 <퍼펙트 블루>라는 제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런 그의 시도는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정식 소개는 무려 7년이 지난 후인 2004년에 이루어 졌지만 그 작품의 완성도는 높다.

본 논고에서는 여러 조직체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퍼펙트 블루]의 서사구조에 대하여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과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2. <퍼펙트 블루> ; 내러티브구조 분석

2.1 <퍼펙트 블루> Synopsis

인기 절정의 아이돌(Idol) 그룹 '참(Cham)'의 야외 콘서트장, 아이돌 그룹의 숙명인지 '참'도 슬슬 해산해야 할 것 같다는 말들이 팬들 사이에서 은밀히 돌고 있다. 콘서트가 클라이맥스를 향할 때, 리더격인 '미마(未麻)'가 갑자기 독립 선언을 한다. 팬들 사이에선 '미마린'이라 불리는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이다. 화려한 여배우에 대한 꿈만을 품은 '미마'는 앞으로 그녀에게 펼쳐질 수많은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는 예상조차 하지 못한다.

'참'을 탈퇴한 '미마'의 첫 일은 TV드라마 '더블 바인드(Double Bind)'에 출연하는 것. 아이돌 가수였긴 해도 연기경험이 적은 그녀에게 주어진 대사는 단 한마디. '미마'를 잘 팔려고 노력하는 기획사 대표인 '타도코로'는 회사의 방침에 반대하는 담당 매니저 '루미'와 갈등을 겪는다. 한편 스튜디오의 한구석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마'가 있다. 마침 촬영 견학을 온 각본가 '시부야'를 본 '타도코로'는 '미마'가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며 어떤 것이든 시켜달라고 부탁한다. 그때 한 통의 팬레터가 전해진다. '미마' 대신 '타도코로'가 편지를 뜯자 갑자기 폭발음이 터진다.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된다.

'타도코로'의 노력으로 점점 출연 신(Scene)이 많아지는 '미마'. 하지만 그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드라마에서 강간 신을 연기하고, 거기에 맞춰 누드 사진도 공개한다. 여배우로서 지명도는 점점 높아가지만, 주변의 급격한 변화에 방황하는 '미마'. 그런 와중에 '미마'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 둘 살해되기 시작한다. 각본가 '시부

야, 카메라맨 '무라노'. 그리고 팬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메시지가 속속 도착한다.

살인 사건과 대담한 노출 연기로 인기 드라마가 된 '더블 바인드'에서 광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소녀 역을 연기하는 '미마'는 현실과 허구의 세계가 교차되며 혼란을 겪는다. 그런 어느 날 그녀 앞에 또 하나의 '미마'가 나타난다. 그것은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자신, 아이돌 가수 시절의 '미마'였다. '미마'는 미쳐버린 것일까? 아니면 꿈일까? 연속 살인 범인은 자신인 것일까? '미마'는 점점 정체성을 잃는다. 과연 그녀가 본 '또 하나의 미마'는 누구일까? 수수께끼의 광적인 남성 팬이 만든 홈페이지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미마'의 계략 속에 여배우 '미마'는 점점 무너져 간다.



▶▶그림 2. 아이돌그룹 참(CHAM)

2.2 <퍼펙트블루> 작품분석

촉망받는 삼인조 그룹 '참(Cham)'의 아이돌 스타인 미마는 기획사의 의도에 따라 배우로 변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물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코드는 '화폐(돈)'이다. 기획사는 아이돌 가수가 가지고 오는 이윤에 만족할 수 없다. 미마는 화폐로 거래 가능한 자본주의의 아이콘이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증식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애초에 가수가 되기 위해 지방에서 동경에 온 미마는 이런 자본의 물신화 전략을 알 수 없다. 이미 가수와 배우라는 직종 상의 차별화는 이 물신화 과정에서 쓸모 있는 '차이'가 될 수 없다. 쓸모없는 차이는 가차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약간의 방황이 있다. 그러나, 미마는 개의치 않는다.

에이전시 타도코로는 그녀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서의 미마를 다듬어내기 위한 작업에 몰입양면 애쓴다. 일반적 구도가 작동한다. 아이돌 스타

에서 성인스타로의 신고식. 그건 목소리가 가진 비가시성과 에스테틱한 감각적 상품성에서 육체가 가진 관능적이며 페티쉬한 상품성으로의 변신을 요구한다. 누드와 강간씬이 이어진다. 화폐로 전화한 인격은 애초의 자연적 존엄성의 여지를 전혀 남겨 둘 수 없다. 거래 가능하기 위해서 인격은 물인격화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 구도란 이런 것이다. 미마를 벗겨라. 그녀의 자연적 모습을 렌즈에 담아 팔아라. 미마는 서서히 이 거대한 이윤 기계 속에 꼼짝 없이 부품화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림 3. 퍼펙트블루 캐릭터

3.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관점

이 작품은 롤랑 바르트의 ‘건강한’ 기호이다. 자신의 자의성에 주의를 모으기 위해 한 순간도 자신을 ‘자연적인’ 것으로 속이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위치를 또한 알리는 기호가 ‘건강한’ 기호이다. [퍼펙트 블루]에 나오는 수많은 장치들-내용 중간의 카운트, 갑자기 튀어나와 박수를 치는 스탭들, 똑같이 반복되는 씬들-은 이 작품이 영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브레히트 서사극적인 장치들은 이 영화를 설명하려는 어떠한 지배적 논리도 인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어떠한 논리도 디테일로 인해 결정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안노 히데야키(庵野秀明)의 [에반겔리온] 극장판 역시도 여러 장면의 구석에 조명 세트를 그려서 이 작품이 영화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준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실사 영화의 도구들은 그것이 애니메이션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연극적이고 인위적인 장치들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오토모 가쓰히로(大友克洋) 사단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테크닉으로 사실주의적이고 재현적인 그림-기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들이 매니저 에리를 주인공 미마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등 사실은 사실적이지도 재현적 이지도 않다는 것을 관객들이 알게 되면서 관객들은 기호의 의미에 대해 유보하게 되고 혼동에 빠진다. 기호의 의미-시니피에-를 끊임없이 차연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는 서사 구조에서도 반복된다.

4.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관점

[퍼펙트 블루]의 서사구조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적이다. 해체주의는 고전적 구조주의에서 즐겨 사용하는 ‘이원적 대립 관계들’- ‘자아’와 ‘비자아’ ‘진리’와 ‘허위’ ‘의미’와 ‘무의미’ ‘이성’과 ‘광기’ ‘표면’과 ‘심층’-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이러한 대립성들이 한 편이 사실은 다른 편에 은밀히 내재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퍼펙트 블루]에서 주인공 미마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정체성이 여러 가지 서사 조직체 사이에서 요동치게 된다. 미마는 스스로가 아이돌 가수에서 전향한 배우인지 아니면 다중 인격을 지니고 자신이 미마라고 믿고 있는 모델인지, 살해당한 사람들이 정말 죽었는지 단지 영화 속에서의 일인지, 자신을 쫓아다니는 ‘미마니악’이 현실의 인물인지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버리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미마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될만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미마는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로 자기 지시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플라크라 이기 때문이다.

[퍼펙트 블루]의 의미화 과정이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녀는 더욱 더 텍스트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 애매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평론가들은 왜 이런 내용을 실사로 만들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퍼펙트 블루]의 콘터는 바로 실사 영화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 [퍼펙트 블루]는 바로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심층적인 구조를 지닌다.

[퍼펙트 블루]를 의미화하려는 노력은 작품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해받게 된다. [퍼펙트 블루]의 디

테일들은 이 영화의 대립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환상’과 ‘현실’ ‘자아’와 ‘비자아’ ‘이성’과 ‘광기’ 사이의 경계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자크 데리다에 따르면 글 자체에 궁극적으로 모든 체계와 논리를 회피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를 ‘방산(放散)’이라고 하는데 해체주의 비평은 텍스트가 궁지에 부딪치고 뿔뿔히 흩어지고 자기 모순을 일으키는 징후적인 대목들, 즉 의미의 곤경(아포리아)에 집착하여 텍스트가 어떻게 자신의 지배적인 논리 체계를 혼란시키는지를 보여 준다. [퍼펙트 블루]는 이러한 아포리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극단적일 정도로 논리 체계를 혼란시킨다.

5. 결론



▶▶그림 4. 미마니악 ; 주인공 미마의 광적인 팬

[퍼펙트 블루]는 후반에 이르러서야 사이코 스릴러로 자신을 재조직화 하고 의미의 논리 체계를 회복시킨다. 논리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귀찮은 디테일을 추방시키고 억압하여 ‘진리’와 ‘허위’ ‘자아’와 ‘비자아’ 사이에 무너졌던 경계를 다시 세운다.

미마는 자신의 아파트인 줄 알았던 방이 매니저 에리의 아파트임을 사소한 차이-어항 속의 열대어-로 알아낸다. 에리가 미마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미마는 똥똥한 에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동안 미마의 분열된 자아가 미마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아’와 ‘비자아’ 간에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준다.

사건들은 다시 의미화 과정을 거치며 그 의미화 과정에 귀찮은 디테일들은 무시되거나 광기로 치부된다. 이제 이성과 광기 사이에도 다시 뚜렷한 경계가 생겼다. 그

런데 에리가 미마를 추적해 올 때 다시 에리는 미마의 모습으로 변한다. 간신히 의미화가 이루어진 지배적 논리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미마가 에리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사이코 스릴러의 장르 조직체를 회복시키고 미마의 자아를 지키고 텍스트의 지배적 논리로 의미를 질서화 하는 효과가 있다. 미마가 에리의 추적을 피하고 에리를 정신 병원에 보냄으로써 텍스트의 지배적 논리는 의미를 질서화 하는데 성공하고 미마는 자신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결정적으로 지나가는 간호원들(타자)이 미마를 미마로 인식함으로써 미마는 서사 구조 내부에 자신의 위치를 확정짓게 된다.

“어쨌든 이게 나야” 라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하는 미마의 마지막 대사는 미마가 자신의 무의식을 억압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음을 알려주며 [퍼펙트 블루]의 논리 체계가 ‘잉여’ 의미들을 가두는 데 성공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퍼펙트 블루]의 논리 체계는 이미 자신이 인위적이고 비자연적인 질서에 불과함을 인정한 후에야 권위를 인정받은 ‘상처받은 영광’일 뿐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1997년 작품이다. 이제 정체성 상실은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너무 멀리 간 것일까? 작품을 보면서 ‘주체 상실’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코드를 한 번 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에 반발심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오시이 마모루(狎井守)의 암울함은 SF를 통해 현실을 우회한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암울함이 어떤 전환(사이보그 주체성)을 암시하며 전개되었다. 약간의 Blue(우울), 그러나 콘 사토시는 그런 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페시미즘은 정확하게 ‘지금-여기’에 기반한다. 주체상실은 분열증으로 진단되며, 냉소적인 인물 배치와 시나리오 속에서 간단없이 증식한다. 암울하다. 그러나, 주체상실이 암울한 것은 우리가 그 주체의 관성에 그만큼 꼬달리기 때문이다. 왜 이래야 되는가? 주체 없는 신체/정신은 늘 자유롭고 노마드적이다. 그 운동 속에서 활달하게 노닐기. 이걸 불가능한 윤리학인가? 작품은, 코기토는 아직 악몽이 아니며, 분열증은 여전히 ‘징후’라고 속삭인다. 완벽한(Perfect) 우울(Blue).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